



技能賞 (大統領賞)

참호 용접, 불활성가스 용접
한국 유일한 기술자
탱크 열교환기 제작
공기 단축에 탁월한 기능공

李 孟 容
한양화학 용접계장

기능상 수상자 李孟容씨(53歲)는 1938년 한국 최초로 용접기술을 습득한 이래 40년간을 기능공으로서 부단한 노력과 기술을 연마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굳은 신념아래 현재 울산지역 용접협회 부회장으로서는 지금까지 한국 최초로 건설되었던 국가기간산업체의 후배양성에도 힘을 기울여, 배출한 용접공만도 70여명에 이르렀으며 그 성실성과 근면성은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바, 사내에서는 주위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상사에게애로 사항을 건의하여 해결하여 주는때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 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에의 공헌도가 지대함.

국가 산업에의 공헌도

용접기술을 연마하여 1. 마산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성공리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공헌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되는 국가기간 산업체인 2. 충주 비료 공장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참호용접, 불활성가스용접 등 특수 용접 분야에 한국 유일한 기술자로서 공장 준공에 공헌한 바 있으며, 3. 1968년 영남화학(주) 울산공장 건설에 투신하여 성공리에 준공을 마쳤으며, 4. 우리나라 최초로 초고압가스를 다루는 한양화학(주) 울산공장 용접계장으로 건설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1973년 폴리에틸렌 공장 폭발사고 복구시에 누구의 지원도 없이 자체 복구작업에 솔선 수범하여 그 탁월한 기능을 발휘했다.

공장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

1975년 2월 새마을 지도자로 선출된 후 공무부 상조회 육성에 주력하여 200여만원의 기금확보에 성공하였으며, 6개 Q.C.씨클 70여명을 관

리 운영하면서 품질관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또한, 영농지도원으로 공장내 유후지 3,000여평을 개간, 묘목판리에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76년 봄 자매부락인 울산시 갈현부락에 비닐하우스 재배법을 지도 20동의 비닐하우스를 건립하여 고등소재 재배로써 농가소득 1백만원을 올리는 데 주역을 담당하였음.

물자절약 및 외화절약에 공헌한 실적

1975년 외국에서 수입예정이던 열교환기 3기를 사내 제작토록 건의하여 이를 사내에서 제작하고 1977년에는 브이 씨 엠공장의 타르분리시설을 자체 제작·건설하여 15만불 상당의 외화를 절약하고 또한, 적절한 품질 관리를 행하여 2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약하였으며, 열교환기 제작기술을 개발하였고 1973년 폴리에틸렌 복구작업시에도 불철주야로 작업을 독려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약 1천만원의 물자를 절약하였으며, 평소에도 철저한 감독과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여 자재비 및 인건비를 연간 1백 5십만원 상당 절약하고 있음.